



# 2011년 3/4분기 생계형 가계대출 9.1% 증가

채원영 연구원

■ 2011년 3/4분기 은행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서 주택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 잔액은 지난해 224조 6,867억 원보다 9.1% 증가한 245조 1,757억 원임.

- 은행의 기타대출 잔액은 146조 3,722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.1% 증가했는데, 이는 2009년 1/4분기 7.1% 이후 최대 증가폭임.
- 상호저축은행, 상호금융, 신협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98조 8,035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.7% 증가하여 2010년 1/4분기 이후 두 자리 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.
- 올 4/4분기 중 증가액이 지난해 수준인 8조 3,818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2011년 말 은행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 중 기타대출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25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.

■ 소비가 주목적인 기타대출의 증가, 가계대출 금리 상승, 그리고 실질소득 증가율 감소와 적자가구 비율 증가 등은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함.

- 기타대출은 마이너스통장 대출, 신용대출, 예·적금담보대출, 동산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가계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빌리는 사례가 대다수라 생계형 대출로 볼 수 있음.
- 500만 원 미만 소액대출 금리는 지난 10월 기준 7.02%,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9월 기준 8.27%, 예·적금 담보대출 금리는 5.47%로 대출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있음.
- 올해 3/4분기 가계 명목 소득은 6.5% 증가했으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은 1.6% 증가에 그쳤고, 적자가구 비율은 28.2%로 올해 2/4분기 26.2%에 비해 증가했음.

(생계형 가계대출 250조 원 돌파 등, 한국경제 등, 12/13)